

'21년 부산항 기항 정기 컨테이너 노선 현황 보고

◇ 부산항 '컨 정기 노선은 전년 대비 10개 증가('18년 이후 최다)한 279개

* 부산항 연도별 정기 노선: ('17.) 253개, ('18.) 263개, ('19.) 268개, ('20.) 269개, ('21.) 279개

◇ (지역) 중국 6개, 오세아니아 4개, 러시아 3개, 일본 2개 증가하였으며, 유럽 2개, 남미 1개, 아프리카 3개 등은 감소

<'21년 부산항 지역별 주간 정기 노선 수>

(단위: 개/주)

지역	중국	오세아니아	러시아	인도	일본	북미	중동	아프리카	유럽	동남아	남미
2021년	53(6)	10(4)	15(3)	9(3)	70(2)	42	4	2(△3)	13(△2)	48(△2)	13(△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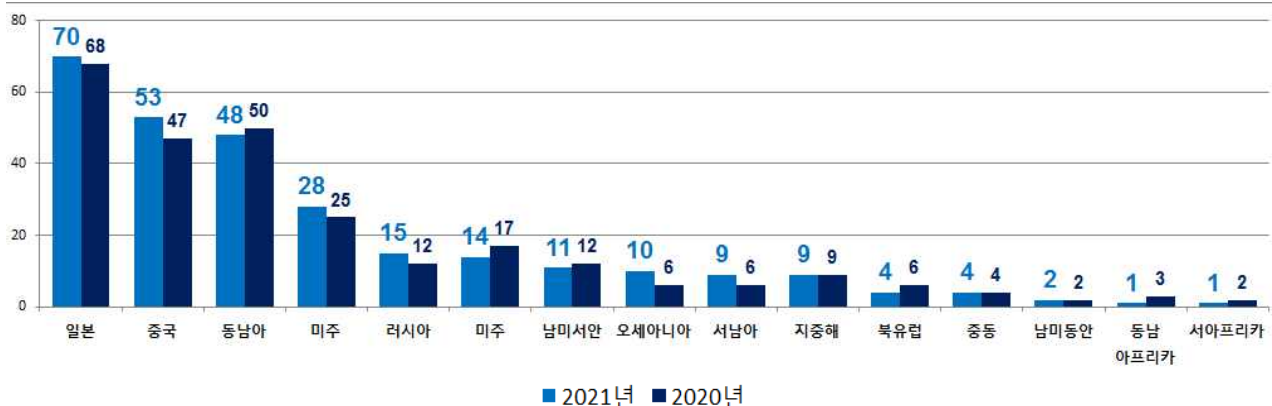
◇ (선사) 총 54개 선사(국적 13개, 외국적 41개) 이용 중이며, 특히 국적선사 노선이 전년 대비 18개 증가

1. 결과 분석

1 종 합

<2021년 부산항 지역별 노선 증감 현황>

(단위: 개/주)



□ Alphaliner 조사 결과, 부산항은 전년 대비 10개 증가한 총 279개 정기(주간) 노선 보유('21. 6. 기준*)

* 글로벌 얼라이언스(선사)는 매년 4월 노선을 정기 개편하나, 금년도는 코로나19, 수에즈 운하 사태 등으로 개편이 지연됨

② 평균 투입 선박 척수 및 선대 크기 증가

- 부산항 기항 선박의 평균 크기는 7,600TEU로 전년 대비 약 200TEU 증가하였는데, 이는 원양 노선을 운항하는 선박 크기가 특히 증가였기 때문임 (북유럽: 3,500TEU* ↑, 미주동안: 1,300TEU ↑, 지중해: 1,200TEU ↑)

* 현재 유럽에 투입되는 모든 선박은 18천TEU급 이상으로, '해운재건 5개년 계획'에 따라 '18년에 HMM이 발주한 20척(24천TEU 16척, 16천TEU 8척)이 올해 6월 HMM HANUL호를 마지막으로 모두 인도된 영향으로 특히 THE 얼라이언스의 유럽투입 선박 크기가 증가함

- 노선 당 평균 투입 선박 수는 전년 대비 약 1척 감소(8.4척→7.6척)

<2021년 지역별 선대 현황 및 주간 기항 횟수>

(단위: 개/주, 척, TEU)

	합계	중국	일본	동남아	미주 서안	미주 동안	북유럽	지중해	중동	서남아	아프리카		오세아니아	남미 서안	남미 동안	러시아
											동남	서				
노선 수	279	53	70	48	28	14	4	9	4	9	1	1	10	11	2	15
선박 크기	7,600	1,500	800	2,100	6,800	10,100	20,900	14,100	7,500	5,200	10,400	11,500	3,100	9,400	9,600	1,400
평균 투입 선박 수	7.6	2.0	1.7	3.2	5.1	10.6	12.2	10.7	6.0	6.9	13.0	11.0	4.4	12.4	13.0	1.7
평균 기항 횟수/주	1.2	1.4	1.7	1.1	1.2	1.3	1.0	1.0	1.0	1.0	1.0	1.0	1.0	1.5	1.0	1.2

③ 지역별 증감 현황

- 신규 지역인 러시아, 오세아니아, 서남아시아 연결 노선과 부산항 최대 환적 국가*인 中·日과의 정기 노선은 더욱 강화됨(그러나, 동남아시아 노선은 시장 호황에도 불구하고 상해, 선전 등 중국 항만 직기항 급증으로 2개 감소)

* '20년 기준, 부산항 환적화물 12,020천TEU 중 중국과 일본 물량은 약 46%(5,554천TEU)

<2021년 지역별 노선 비교(vs 2020년)>

(단위: 개/주, %)

	합계	일본	중국	동남아	미주 서안	러시아	미주 동안	남미 서안	오세아니아	서남아	지중해	북유럽	중동	남미 동안	아프리카	
															동남	서
2021년	279	70	53	48	28	15	14	11	10	9	9	4	4	2	1	1
(점유율)		25.1	19.0	17.2	10.0	5.4	5.0	3.9	3.6	3.2	3.2	1.4	1.4	0.7	0.4	0.4
증감	개수	10	2	6	-2	3	3	-3	-1	4	3	0	-2	0	-2	-1
점유율		-0.2	1.5	-1.4	0.7	0.9	-1.3	-0.5	1.4	1.0	-0.1	-0.8	-0.1	-0.0	-0.8	-0.4
2020년	269	68	47	50	25	12	17	12	6	6	9	6	4	2	3	2
(점유율)		25.3	17.5	18.6	9.3	4.5	6.3	4.5	2.2	2.2	3.3	2.2	1.5	0.7	1.1	0.7

- 유럽, 미주, 아프리카 등 원양노선*은 총 6개가 감소하였으나, 우수한 환적 경쟁력을 보유한 북미지역 연결 노선은 전년과 동일한** 42개/주 유지

* '21. 6. 기준, 미국(LA, 오클랜드), 독일, 베네룩스, 영국, 남중국 등을 기항하는 노선의 결항이 다수 발생하여 운항기간은 더욱 길어지고 있음.

** 반면, 상해와 선전은 '20년 기준으로 북미 노선 각 36개였으나, 금년에는 45개, 40개로 증가 (이는 미국의 아시아 제품 수입이 '20년 하반기부터 월평균 약 20%~90% 증가 (출처: IHS Markit)하고 있는데, 그 중 가장 비중이 높은 국가인 중국 물량이 증가함에 따른 직수출 노선이 증가한 것으로 분석됨)

- (미주동안) THE 얼라이언스의 신규 노선 'EC6' 투입으로 노선 1개 증가하였으나 기항 횟수는 3회 감소*

* 부산항에 주2회 기항하던 미주동안 노선 'EC3'과 'EC1'이 통합되어 주 1회 기항으로 감축되었으며, 2M의 TP-10 노선 또한 부산항 기항 감소(주2회→주1회)

- (미주서안) 임시선박*(extra loader)을 제외하고도 4개 노선 증가*하였으나, THE 얼라이언스 PS5 노선의 부산항 미기항으로 3개 증가

* (OCEAN) 'PSW5' (MSC) 'Chinook' (COSCO/OOCL) 'AAC3/PCC3' 신설 및 (2M/SML) TP-8/Orient/PS1의 운항 재개

<미주서안 임시선박 운항 현황('21. 6. 기준)>

선사	투입선대(TEU)	기항항만
HMM	1 * 6,800	Laem Chabang, Busan , Long Beach, Tacoma, Busan
SM 상선	1 * 6,655	Shanghai, Yantian, Kwangyang, Busan , Los Angeles, Busan
	1 * 3,314	Shanghai, Busan , Vancouver, Seattle, Busan
ONE	1 * 4,520	Ningbo, Shanghai, Busan , Tacoma, Busan, Shanghai, Ningbo
	1 * 2,553	Busan , Shanghai, Ningbo, Los Angeles, Shanghai

- (유럽) 2M의 1개 노선(AE-6/Lion) 부산항 미기항, '20년 4월 이후 중단된 1개 노선(AE-2/Swan) 운영 재개 지연으로 2개 감소

④ UN 발표 항만연결성 지수(PLSCI)

- 국제무역연합개발위원회(UNCTAD)가 정기 노선 발달정도를 포함한 항만의 연결성을 측정하는 지표인 PLSCI*는 전년 대비 2.8점 상승

<UN 발표 항만연결성 지수(21.2분기까지)>

항만	2019년				2020년				2021년		(21년vs20년)	
	1분기	2분기	3분기	4분기	1분기	2분기	3분기	4분기	1분기	2분기	증감	증감율
상해	133.3	134.9	137.5	138.1	136.9	134.5	138.9	140.7	143.0	145.9	11.4	8.5%
싱가폴	123.8	124.1	123.7	121.3	126.4	125.5	127.0	129.7	128.4	128.5	3	2.4%
닝보	114.4	115.6	118.8	119.0	118.9	117.9	121.7	122.2	123.3	125.7	7.8	6.6%
부산	113.7	115.1	119.0	119.1	118.7	116.4	117.1	118.4	118.4	119.2	2.8	2.4%
홍콩	103.3	104.9	103.9	103.0	107.0	103.5	105.5	106.5	107.0	107.2	3.7	3.6%
칭다오	91.0	91.8	97.8	98.4	98.0	95.5	96.0	96.5	96.8	97.0	1.5	1.6%
로테르담	92.6	91.7	98.1	97.7	96.4	93.1	94.5	94.6	95.2	95.7	2.6	2.8%
포트 켈랑	86.4	87.3	88.1	87.9	88.2	88.4	88.5	92.7	93.5	93.3	4.9	5.5%
앤티워프	90.6	90.1	88.0	93.5	93.6	88.8	92.9	92.4	93.1	93.2	4.4	5.0%
카오슝	82.7	84.3	84.7	84.7	82.3	81.2	87.9	87.7	88.7	88.5	7.3	9.0%

* '06년 홍콩항의 연결성 지수를 기준으로 ①항만의 선박 수용능력, ②컨테이너 정기선 입항 빈도, ③주 단위 예약 선박 수, ④컨테이너 처리능력, ⑤서비스 항로 및 선사 수, ⑥최대 선형을 종합 평가

⑤ (참고) 투입연기 노선

- 향후 운항 재개 예정인 1개 유럽노선(AE-2/SWAN)은 집계에서 제외

* '20년 4월 노선 조사 시, 코로나19로 인한 수급조정을 위해 투입 연기된 4개의 노선(미주서안 2개, 미주동안 1개, 유럽 1개)도 포함하였음